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대외무역

: 2004-2014년 중국 대 아세안 무역 총액

▶ 이슈 포커스

: 중국 푸젠성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핵심구역 개발 본격화

▶ 동향 & 뉴스

■ '10~'14년 중국 및 푸젠성 대(對) 아세안 무역총액과 증가율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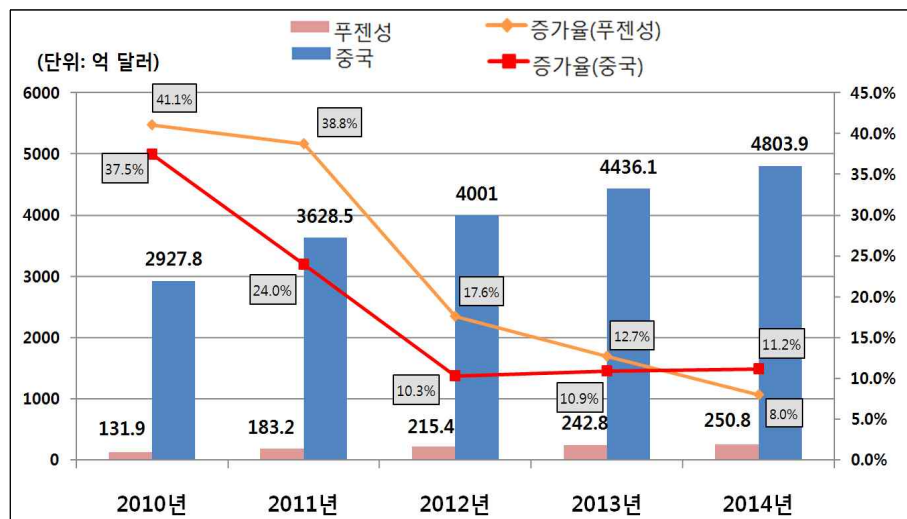
년도	푸젠성	증가율	중국	증가율
'10	131.9	41.1%	2927.8	37.5%
'11	183.2	38.8%	3628.5	24.0%
'12	215.4	17.6%	4001	10.3%
'13	242.8	12.7%	4436.1	10.9%
'14	250.8	8.0%	4803.9	11.2%

자료 : 中国统计局 <http://www.stats.gov.cn/>,
 福建省统计局 <http://www.stats-fj.gov.cn/xxgk/tjgb/>

중국리포트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하실 경우, 자료를 「KMI 중국리포트」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KMI All Rights Reserved.

통계로 보는 중국 대외무역 : 2010-2014년 중국 대(對) 아세안 무역총액



자료: 中国统计局<http://www.stats.gov.cn/>, 福建省统计局<http://www.stats-fj.gov.cn/xxgk/tjgb/>, KMI 작성

2014년 중국 대(對) 아세안 무역총액 전년대비 11.2% 증가

중국 대외 수출입무역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중국 대(對) 아세안 무역총액은 2,927.8억 달러로 전년대비 37.5%의 급성장을 기록하였다. 2014년 중국 경제는 고속성장에서 신장타이(新常态)로 접어들었으며 중국 대 아세안 무역총액은 전년대비 11.2% 증가한 4,803.9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2010년 푸젠(福建)성 대 아세안 무역총액은 131.9억 달러로 전년대비 41.1% 빠른 성장속도를 기록했다. 2010~2014년 5년 간 지속적인 성장을 거쳐, 2014년 푸젠성의 대 아세안 무역총액은 250.8억 달러로 전년대비 8%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2015년 푸젠성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통계 공보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푸젠성 대 아세안 무역총액은 약 171.4억 달러로 전년대비 3.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로써 아세안은 푸젠성에서 유럽을 제치고 미국 다음가는 2위 무역지역으로 부상하였다.

2010년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아세안은 중국의 세 번째 무역파트너로 부상하였고, 동시에 중국은 아세안의 1위 무역파트너가 되었다. 그리고 2015년 3월에 발표한 국무원 「실크로드 경제벨트 추진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비전과 행동」에 따라 푸젠성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핵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2015년 푸젠성은 「푸젠성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핵심지역 건설방안」을 작성하여 무역 다원화를 추진하고, 특히 아세안 등 일대일로 주변국가와의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대외무역
: 2004-2014년 중국 대외무역 무역총액
- ▶ 이슈 포커스
: 중국 푸젠성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핵심구역 개발 본격화
- ▶ 동향 & 뉴스

지수 동향

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01-09	12-25
종합지수	1,060.66	726.91
일본 향로	648.92	628.37
구주 향로	1,319.07	805.77
미서부 향로	1008.26	762.64
미동부 향로	1,399.88	871.78
한국 향로	701.22	570.22

주 : '01-09' 2015년 1월 9일 지수.
자료 : 상하이 항운교역소.

CHINA COASTAL BULK FREIGHT INDEX

	01-09	12-25
종합지수	892.58	936.57
석탄	918.44	955.27
곡물	717.13	654.25
금속광석	760.29	899.41
정유	1,215.40	1229.50
원유	1,597.14	1541.72

자료 : 상하이 항운교역소.

이슈 포커스 : 중국 푸젠성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핵심구역 개발 본격화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내놓은지 2년이 지났다. 현재 막강한 외교력과 자본력을 앞세워 치밀한 전략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1세기 해상실크로드(一路)의 핵심구역(核心区)으로 확정된 푸젠(福建)이 지난 11월말 일대일로 중앙영도소조의 요구에 따라 핵심구역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1 해상실크로드 핵심구역 선정 배경

중국의 11개 연해지역에서 푸젠성이 유일한 해상실크로드 핵심구역으로 선정된 것은 대만과 마주하고(양안지역), 남북 해상로를 연결하는 교통요충지로서의 우월한 지리적 여건, 뛰어난 역사적 문화적 가치 등이 크게 작용했다.

첫째, 푸젠성은 고대 해상실크로드의 주요 출발점이자 발상지이다. 특히 유네스코가 선정한 해상실크로드의 기점인 취안저우(泉州)는 송·원 시기 주요 항구였다. 당시 수많은 아라비아 상인들이 해상실크로드를 거쳐 취안저우에 정착하면서 향료와 비단, 자기(瓷器), 차(茶) 등의 교역활동에 종사했다. 현재에도 10만 여 명의 아라비아 상인들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둘째, 문화적 우세가 뛰어나다. 푸젠은 중국 해양문화의 중요한 발원지인데, 특히 마조문화(媽祖文化), 선정문화(船政文化)는 중국은 물론 세계 해양문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해상실크로드 구축에 있어 해양문화 교류와 협력을 정면에 내세우고 있는 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

[그림1] 일대일로 전략에서 푸젠성의 포지션



자료 : 푸젠성 사회과학원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대외무역
: 2004-2014년 중국 대 아세안 무역
총액
- ▶ 이슈 포커스
: 중국 푸젠성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핵심구역 개발 본격화
- ▶ 동향 & 뉴스

셋째, 화교 네트워크 자원이 풍부하다. 광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화교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약 1,580만 명의 화교가 세계 188개 국가 및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그 중 동남아에 약 1,200만 명이 있고,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 산업기반이 튼튼하고 민간 경제와 수출 지향성 산업이 발달된 가운데, 대만과 아세안과의 교역비중이 매우 높다.

2 해상실크로드 핵심구역의 기능 및 협력방향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핵심구역은 연선 국가와의 인프라 호연호통(互聯互通)을 위한 주요 거점, 경제·무역 협력의 최전방 거점, 체제혁신의 선두지역, 인문적 교류의 주요 유대(紐帶)지역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협력방향은 크게 3개 노선으로 구분된다. 푸젠 연해 항만에서 남중국해, 말라카해협, 인도양을 거쳐 유럽에 이르는 서부노선; 연해 항만에서 남중국해, 인도네시아를 거쳐 남태평양에 이르는 남부노선; 연해 항만에서 북으로 올라가며 한국, 일본, 러시아 극동지역을 거쳐 북미로 연결되는 북부노선 등이다. 특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와의 연계를 추진 중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북부노선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림2] 푸젠성 해상실크로드 핵심구역 개발 노선도



자료 : KMI 재작성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대외무역
: 2004-2014년 중국 대 아세안 무역
총액
- ▶ 이슈 포커스
: 중국 푸젠성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핵심구역 개발 본격화
- ▶ 동향 & 뉴스

3 지역별 개발 목표 및 추진방향

푸젠성은 지역별 인적 자원과 역사 문화, 대외개방과 산업발전 수준 등의 실정을 고려해 중점 협력 분야와 구역을 확정하고 통일적으로 국제협력에 참여할 예정이다.

먼저, 취안저우는 21세기 해양실크로드 선행구역(先行区)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해외 화교, 민간 경제, 이슬람 문화 등의 장점을 활용하고 화교의 핵심구역 개발 참여, 민간 기업의 해외진출, 해상실크로드 문화의 국제교류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제금융 혁신, 제조업의 녹색경제 전환을 추진하고 동남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북부 아프리카와의 개방협력 수준을 강화한다.

둘째, 푸저우, 샤먼, 핑탄(平潭) 등 항만도시를 해상 협력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개발한다. 푸저우, 샤먼의 산업 기반과 항만자원 및 개방정책 등의 종합적 경쟁력을 십분 활용하여 푸저우신구, 샤먼동남국제해운센터 개발을 중점적으로 개발한다. 또한 아세안과의 해양협력 강화, 국제영향력을 갖춘 국제교류 채널 등을 구축하고,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핵심구역의 호련호통 거점, 경제무역 협력의 중심기지와 인문교류의 중점지역으로 개발한다. 핑탄 종합실험구, 샤먼 양안교류 종합개혁시험 등 對대만 정책과 장저우(漳州) 양안산업협력단지 등에서의 장점을 활용하여 양안간 협력을 확대하고, 제3국 시장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셋째, 푸톈(浦田), 닝더(宁德)의 심수항만과 마조문화 등의 배경을 잘 활용하여 해상실크로드 연선국가와의 경제협력 확대와 문화교류를 촉진한다.

넷째, 산밍(三明), 난핑(南平), 룽옌(龙岩) 등의 도시 배후지 기능을 강화하고 생태관광과 녹색발전시범구 개발, 객가(客家)문화의 교류기지로 개발한다.

4 해상실크로드 핵심구역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핵심지역으로서 푸젠성이 추진하는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크게 인프라연계 가속화, 산업협력 추진, 해양협력 강화, 경제무역 협력 확대, 인문교류와 협력 촉진, 화교네트워크의 활용, 양안간 국제협력, 협력체제의 혁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표1] 해상실크로드 핵심구역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구분	과제	세부 추진 과제
인프라 연계	항만중심의 해상통로 구축	.샤먼동남국제항운센터 개발가속화 .연선국가와의 해운항만 협력강화 .국내외 해운물류단지 개발 .샤먼국제크루즈모항 개발
	항공거점과 노선 확충	.샤먼, 취안저우 신공항 개발 등 .연선국가와의 항공노선 신규 개설 추진
	육해 복합운송 개선	.중서부지역의 출해구 역할 강화 .철도해운 복합운송 적극 추진
	통관체계 개선	.통관관리화 촉진 .해상실크로드 물류정보센터 구축
	현대화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푸젠-아세안 정보회랑 구축 추진 .연선국가와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추진
산업협력 추진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우세산업의 연선국가 투자 장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대외무역
: 2004~2014년 중국 대 아세안 무역
총액
- ▶ 이슈 포커스
: 중국 푸젠성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핵심구역 개발 본격화
- ▶ 동향 & 뉴스

		.기계,의류,신발 등산업의 해외단지 개발
	현대 농업협력	.차,식용균,야채 등의 해외생산단지 개발 .대동남아,남아시아 농업기술 원조 강화
	기간산업 협력	.석유화학,기계,전자정보 분야 협력 강화 .관련분야의 외자유치 장려
	에너지·광물산업 협력	.석유가스,광석 등의 환적·가공기지 개발 .서아시아와 에너지광물협력 강화 .동남아시아와 광물자원 개발 가공 협력
해양협력 강화	관광산업 협력	.해상실크로드 문화관광상품 개발 .해상실크로드 관광경제회랑 개발 .한남중국해 관광경제권 개발 .핑탄 국제관광섬 개발
	원양수산업	.태평양,인도양 공해어업자원 개발 .연선국가에 원양어업생산기지 개발
	해양과기 및 생태환경보호	.아세안과 해양생태환경 보호·복구 협력 .연선국가와 해양보호 공동아젠다 마련 .중-아세안 해양경제포럼 개최 등
경제무역 협력	해상안전 협력	.아세안과 해상구조, 해양방재, 공동순찰 등 분야의 협력 강화
	푸젠자유무역시험구 추진	.무역투자 편리화 추진 .연선국가와의 개방협력 신타델 개발
	대외교역수준 향상	.남아,서아,아프리카 등 신 시장 개척 .고부가가치 수출비중 확대
	무역지원시스템 강화	.국제전자상거래·물류지원서비스 강화 .해외물류단지 개발 장려
인문 교류 및 협력 강화	투자촉진 강화	.고기술, 친환경 산업의 외자유치 장려 .박람회, 투자상담회 등의 적극 활용 .해외 경제무역협력단지 개발 지원
	문화교류	.연선국가와의 문화교류 협력 강화 .푸젠 국제마조문화센터 개발
	교육협력	.중-아세안 해양아카데미 설립 추진 .해상실크로드연구원 공동 설립 추진
	의료위생 교류 협력	.의료원조 및 푸젠-태국 의료협력 강화 .동남아시아에 병원 설립 지원
	우호도시 확대	.아세안과의 우호도시 결연 확대 .연안 국가 도시와의 교류 강화
화교역할 강화	노무협력	.외국노동자 활용제도 개선 .대외 노무인력 송출 강화
	화교의 참여 유도	.화교의 투자 유치 강화 .화교와 공동으로 연선국가 투자 추진
양안간 국제협력	화교연대 강화	.푸저우, 샤먼 화교지원서비스기관 설립
	경제무역 협력 강화	.자유무역구 협력 강화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추진
	인적 교류 확대	.마조,객가문화 등 교류 촉진 .양안과 아세안간 스포츠교류 강화
개방 및 협력 체제 혁신	정부간 교류체제 강화	.푸젠-아세안 정부정기교류체제 구축 .우호 결연 도시 확대 .주중 외교기관과의 교류 강화
	국내협력체제 구축	.해상실크로드 협력네트워크 구축
	주요 협력플랫폼 구축	.해상실크로드도시연맹 사무국 유치 .해상실크로드박람회 개최 .중-아세안 해양협력센터 및 해상교역센터 설립 추진 .실크로드국제영화축제, 해상실크로드 국제문화교류 컨벤션센터 설립 추진

자료 : 푸젠성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핵심구역 개발방안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대외무역
: 2004~2014년 중국 대 아세안 무역
총액
- ▶ 이슈 포커스
: 중국 푸젠성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핵심구역 개발 본격화
- ▶ 동향 & 뉴스

5 시사점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구상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 의회 연설에서 제안한 것인 만큼 아세안지역이 우선 협력대상이다. 해상실크로드의 핵심구역으로 선정된 푸젠성 역시 아세안을 핵심 협력대상으로 연선국가와의 인프라 구축 및 연결, 무역·투자 증진, 해양 개발 협력, 대만과 화교의 역할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핵심 사업으로는 먼저, 인프라 분야에서 아세안 등과 항만인프라·물류단지 건설 및 운영 관리 협력, 해외 전자상거래 및 물류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둘째, 무역투자 분야에서 자유무역 시범구 개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아세안 국가에서 해외 투자교류회 개최, 라오스·스리랑카 등 국가에서 해외 경제단지 개발, 셋째, 해양 개발협력 분야에서 중-아세안(인도네시아·태국)간 수산물 거래소 설립, 어업기지 개발협력(인도네시아·미얀마), 해양협력센터 설립, 해양대학 설립(말레이시아)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푸젠성은 동부 연해지역에서 한국과 교류가 가장 저조한 지역으로 향후 푸젠성 인프라 시장과 동남아 및 연선국가 진출을 겨냥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지난 5년(2010~2014)간 한국의 푸젠성에 대한 투자규모는 3억 2,403만 달러로 불과했으며, 교역규모도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4년 63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LCD부품, 주요 수입품은 대리석·컴퓨터 부품 등이며 최근 대리석과 신발류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징적인 것은 푸젠성 기업의 한국 투자형태로 대부분 증시상장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바 한국증시에서 상장한 전체 중국기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난 10월 31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커창(李克強) 총리의 정상회담 직후 양국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와 제3국 시장 협력 전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서 양 전략의 연계 관련 경제정책 공조, 인프라 연결, 무역·투자 확대, 금융 협력 등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제3국 시장 공동 개척, 양국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투자 및 금융지원 제공, 공동연구 및 시범사업 실시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1월중 서울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첫 경제장관 회의¹⁾가 개최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연계사업이 보다 가시화될 전망이다.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핵심구역인 푸젠성과의 연계사업 등이 기대된다.

박문진 전문연구원
kmishanghai@naver.com

1)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양국의 경제현황 공유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서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데 우리나라는 기재부장관 겸 경제부총리, 중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주임이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있음.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대외무역
: 2004-2014년 중국 대 아세안 무역
총액
- ▶ 이슈 포커스
: 중국 푸젠성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핵심구역 개발 본격화
- ▶ 동향 & 뉴스

동향 & 뉴스

경제 · 정책

- 중국 광둥성 위원회, '13·5' 계획에 관한 건의 중 '일대일로' 건설 추진 가속화 제기
- 국가 발개위, 해수담수화 산업 발전에 대한 지도 강화
- 샤먼(厦門), 해양산업 창업투자 기금 설립 예정
- 중국 최초 「중국해사중재연간보고서(2014)」 발표
- 상해(上海), 국제항운중심 건설 발전 자금 설립 예정

해운 · 항만 · 물류

- 2016년 내하 단일선체 케미컬 및 단일선체 탱커 운항 금지에 관한 사항 발표
- 2016년 중반기, 한·중세관 “원산지 전자데이터 교환시스템” 운영 시작
- 중해중공업CIC(장쑤), 신조 탱커 2척 수주 획득
- 칭다오(靑島)항, 시아뉴크항 및 SITC 3자간 전력적 협력 심화
- 다롄(大連)항, 다롄 중심의 “초원 실크로드” 조성
- 양뤄(阳澄)항, 장강 중상류 최대 “과중화물 터미널”로써의 운행 개시
- 선전(深圳)항 3대 컨테이너 부두 내년 1월 1일부터 입항세 부과

- 황포문충(黃埔文冲), 중국수출입은행 광둥(廣東)성지점 4억 위안 선박 수출 대출금 획득
- 그리스 최대항구 피레우스 민영화 일정재개, COSCO 또 다시 입찰참여
- 시노트란스, 북극LNG선 5척 발주 확정
- 2020년 중국 크루즈 관광객 450만 명 달성 예상
- 해커우(海口)항 새로운 컨테이너부두 1개, 벌크부두 1개 운영 시작
- 2015년 중구(中谷)해운 샤먼항 컨테이너 물동량 100만 TEU 돌파

해양 · 수산

- ‘해양+’, 칭다오 해양산업 발전에 큰 기여
- 첫 번째 전국 해양경제조사 시행 작업 장쑤성에서 시작
- 중국, 해양과 해양법에 관한 입장 밝힘-‘조화로운 해양 건설 함께 추진’
- 제32번 남극고찰 내륙팀 정식으로 출정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대외무역
: 2004-2014년 중국 대 아세안 무역
총액
- ▶ 이슈 포커스
: 중국 푸젠성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핵심구역 개발 본격화
- ▶ 동향 & 뉴스

동향 & 뉴스

1 중공 광둥성 위원회, '13·5' 계획에 관한 건의 중 '일대일로' 건설 추진 가속화 제기

최근에 중국공산당 광둥성 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중공 광둥성 위원회,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13·5 계획 제정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약칭)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광둥성은 산업의 새로운 구조를 구축하고 통합되고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글로벌 경제의 협력과 경쟁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고 '일대일로'의 전략 중추 건설과 경제무역 협력중심 구축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것이다.

<의견>에서 광둥성은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가 추진하는 '일대일로' 정책과 광둥성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을 계기로 글로벌 경제 협력과 경쟁에 전면적으로 참여한다. 홍콩, 마카오와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국제사회와 연결되는 새로운 개방적 경제체제를 서둘러 수립함으로써 광둥성이 국제경쟁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광둥성 자유무역시험구를 건설하고 법치화, 국제화, 편리화를 지닌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수준이 높은 국제 투자, 무역, 관리 규칙과 연결되는 자유무역원구를 구축한다. '일대일로' 전략 중추와 경제무역 협력중심을 건설하기 위해 경제무역 협력을 중심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육해내외연동(陆海内外联动)과 동서쌍향개방(东西双向开放)이라는 새로운 전면적 개방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산터우(汕头), 잔장(湛江) 등 주요한 지점(支点) 도시들이 '일대일로' 연선 우호도시와 공항과 항만 분야에서 협력연맹을 함께 구축한다. 이에 해상 물류대동로, 해상실크로드 항공노선과 디지털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추진한다. 남태평양 도서국가들과 협력을 심화하고, 남태평양 도서국가들과의 협력 시범 성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의견>에서 광둥성은 주강삼각주, 광둥 동부와 서부의 3대 항만 클러스터와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연해 항만 심수항 항로와 쑤우강 철도(疏港铁路), 도로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종합운송을 발전하고 도로·철로·수로의 연합운송, 강-바다 복합운송 등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육해 종합운송 구조를 구축한다. 광둥 동부와 서부 지역의 항만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수로, 도로와 철로 간의 연결을 서둘러 형성하고 기능이 보완된 종합교통운송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산업 이전과 융합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녹색발전 이념을 지키고 생태안전성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습지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고 광둥성의 습지공원과 자연보호구 체계를 구축한다. 도서의 생태보호를 강화하면서 규칙에 맞게 개발하고 해양오염방지와 생태 관리를 강화한다.

<의견>에서 광둥성은 국제경쟁력을 지닌 새로운 산업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스마트 장비제조, 선박과 해양플랜트, 위성응용 등 선진적인 제조업을 중점으로 발전시킨다. 연해 중화학 공업단지를 구축하고, 전략적 신흥산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생물약의 등 산업을 새로운 지주 산업으로 키운다. 신 에너지, 에너지 절약 등의 산업을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킨다. 현대 해양산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양공간자원에 대한 개발·이용 수준을 제고하여 해양경제 경쟁력을 높인다. 주강삼각주 해양경제 최적화 발전구역 및 광둥 동부와 서부의 해양경제 중점발전구역을 서둘러 건설하도록 한다. 해양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자원의 개발과 관리 모델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자료: 中国海洋报, 2015.12.14>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대외무역
: 2004~2014년 중국 대 아세안 무역
총액
- ▶ 이슈 포커스
: 중국 푸젠성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핵심구역 개발 본격화
- ▶ 동향 & 뉴스

2 국가 발개위, 해수담수화 산업 발전에 대한 지지도 강화

최근에 국가발개위는 베이징에서 해수담수화 산업발전 좌담회를 열었다. 회의에서 '12·5'계획 기간에 연해 성(구, 시)들의 해수담수화 산업의 발전상황, 문제와 향후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중국에서 수자원은 심각한 불균형 상황에 놓여 있다. 연해지역은 경제가 발달되었지만, 인구가 조밀해서 수자원이 결핍되어 있다. 따라서 해수담수화 산업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해수담수화 비용문제와 정책 부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국가 발개위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연해 각지역은 국가가 수자원의 안전과 해수담수화 산업발전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 현지의 용수수요와 발전상황을 분석하여 해수담수화 산업의 발전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13·5 계획' 기간에 중국은 해수담수화 산업의 발전에 대한 지원은 부단히 강화할 것이다. 계획에 따라 자금지원, 정책조정 등 방식으로 지원정책의 실시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동시에 담당 부서간 소통과 조화를 강화하고 서로 협력하고 중국의 해수담수화 산업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2012년 국무원은 국가 발개위가 작성한 <해수담수화산업 발전에 관한 의견>을 발행했다. 연해 각지는 해수담수화, 해수직접이용 등을 중심으로 산업의 빠른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담수화의 규모가 안정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해수담수화의 장비기술도 안정적으로 제고되고 있다. 지금은 주로 역삼투와 저온 멀티효과 증류 두가지 주류 기술이 형성되고 국제 선진수준에 달했다.

국가해양국 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4년 전국 해수이용 보고>에 의하면, 2014년 연해 각지역 및 관련 기관들이 해수이용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로 증가된 해수담수화 공정의 생산규모는 2,61만 톤/일이다. 전국에서 이미 건설된 해수담수화 시설의 총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전국에서 해수담수화 시설은 총 12개를 건설했다. 1일 생산규모는 92.69만 톤에 달하고 해수담수화시설의 최대 생산규모는 20만 톤/일이다.

<자료: 中国海洋报, 2015.12.15>

3 2016년 내하 단일선체 케미컬 및 단일선체 탱커 운항금지에 관한 사항 발표

최근 「“12·5”기간 전국 내하선형표준화 업무 실시방안」에 따라 중국교통운수부는 내하 단일선체 케미컬 및 단일선체 탱커 운항금지에 관한 사항을 발표하였다. 2016년 1월 1일부터 선저 외판에 액체화물을 적재하는 단일선체 케미컬(2G선형 3형 제외) 및 단일선체 탱커(600DWT이하 제외)는 장강간선, 서강(西江)항운간선, 징항(京杭)운하, 장강삼각주 항로망 및 주강삼각주 등의 수역에서 운항이 금지된다. 또한 다른 선형 케미컬 및 탱커 등도 상술한 수역에서 운항 금지되는 날짜는 별도로 발표된다.

이 외에, 각성 교통운수관리부문은 조직 지도 사업을 강화해야 함과 동시에 운항 금지 실시방안을 제정한다. 금지 운항 선박 리스트 발표를 통해 업무 분담을 명확해야 하고, 홍보 역량을 강화한다. 그리고 해당 항만·해운, 해사, 선박 검사 및 갑문 등 관리 기구의 요구에 따라 운항 금지 선박의 검사증명서와 운영증명서에서 관련 수역 운항을 취소해야 한다.

<자료: 中国交通新闻网, 2015.12.28.>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대외무역
: 2004~2014년 중국 대 아세안 무역
총액
- ▶ 이슈 포커스
: 중국 푸젠성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핵심구역 개발 본격화
- ▶ 동향 & 뉴스

4 2016년 중반기, 한·중세관 “원산지 전자데이터 교환시스템” 운영 시작

2015년 12월 22일 중국세관 소식에 따르면, 2016년 중반부터 한·중 세관 간 “원산지 전자데이터 교환시스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로써 수입품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특혜 관세 협정을 받을 수 있다.

최근 한·중 FTA협정이 발효되었다. 협정에 따르면,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화물만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구의 건전한 실시 확보를 위해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원산지 규정이 잘 지켜져야 된다.

중국관세청은 중국 FTA협정 범위 확대에 따라 원산지 규정이 잘 시행되기 위해 중국세관 감독관리 이념, 제도 및 과학 기술 응용 쪽에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성숙한 원산지 관리 패턴과 경험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정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또한 무서류 통관방식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세관은 세계에서 최초로 원산지 데이터 교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산지 규정에서 “직접운송” 조례의 응용모델을 혁신함과 동시에 세계관세기구와 자유무역파트너의 인정을 받았다. 현재 중국은 한·중 FTA협정을 포함해서 4개 FTA협정 당사국과 “원산지 전자데이터 교환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현재 중국은 22개 국가 및 지역에서 14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10월 까지 각 FTA협정에서 수입화물 4,056억 달러에 관세 1,642억 위안의 특혜를 받았다. 2014년의 경우, 한해 동안 세관에서 감독 관리한 FTA협정 수입화물은 778억 달러이며, 관세특혜 333억 위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료: 新华社, 2015.12.23>

5 중해중공업CIC(장쑤) 신조 탱커 2척 수주 획득

최근 중해중공업CIC(장쑤)는 TRADE AND TRANSPORT INC와 아프라막스 1척 및 수에즈막스 1척 선박 신조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 상반기에 인도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주하는 아프라막스와 수에즈막스 선박은 중국선박 및 해양공정설계연구원이 설계하고, 중해중공업CIC(장쑤)이 건조할 예정이다. 그리고 선박은 선형, 에너지 절약 장치, 에너지 효율 관리 등 부분을 개선하는 동시에 관련 환경 보호 기준에 부합되게 오일 소모량을 낮추고, 친환경 기술을 이용할 것이다.

최근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선박 시장에서 중해중공업CIC(장쑤)는 내부 개혁을 심화하는 동시에 혁신 및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고, 선박 건조 기술, 품질 수준 및 관리 능력을 제고시킬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마케팅 강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확대하고, 주요 상품을 보완하여, 첨단 조선 기술 연구 개발을 통해 선주에게 인정받고 신규 수주를 획득할 것이다.

금번 신조계약 체결을 통해 중해중공업CIC(장쑤)은 생산능력과 전문기술을 인정받는 동시에 향후 2년 동안 조선수주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신규 수주를 통해 조선업 혁신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수 있고, 상품 구조 개혁을 가속화하여, 중국 국내에서 높은 수준의 조선기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 国际船舶网, 2015.12.22>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대외무역
: 2004~2014년 중국 대 아세안 무역
총액
- ▶ 이슈 포커스
: 중국 푸젠성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핵심구역 개발 본격화
- ▶ 동향 & 뉴스

6 '해양+', 칭다오 해양산업 발전에 큰 기여

최근에 칭다오시 해양어업국 국장 위성푸(于成璞)는 2015년에 칭다오시가 '해양+' 행동계획을 깊이 실시하고 해양종합관리와 현대어업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왔다고 밝혔다. 2015년 칭다오시의 해양산업 생산총액은 3,200억 위안으로 작년대비 9% 증가했다.

2015년에 칭다오시는 육·해 통합 종합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해안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도서에 대한 보호와 이용을 강화하며 도서 생태에 대한 보호와 복원 및 무인도서에 대한 개발을 가속화해 왔다. 총 1억 위안을 투자하여 대공도(大公島)에 대한 보호·개발·이용 시범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시작했다. 해양과학기술의 혁신을 추진하고 해양연구 성과를 생산력으로 전환하고 공공서비스 플랫폼 건설을 지지하며, 해양생물, 해양의약, 해양플랜트 등 해양경제 첨단 신흥산업을 가속화하였다. 지원한 프로젝트는 총 39개이며 국가보조자금 3억 6,900억 위안이다.

이와 동시에 칭다오시는 수산 우량종 번식기지, 수산 친환경 양식기지, 어업자원 양식·보호기지, 원양어업 생산기지, 수산가공 수출기지, 수산 콜드체인 물류기지 등 현대어업 '6대 기지'를 구축해왔다. 특히 원양어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어업자원의 회복을 진행하고 건전한 양식방식을 대대적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칭다오시 해양어업 사업에 해양생태보호의 압력이 증대되고 어업자원의 양식·회복 능력을 위해서는 아직 문제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2016년에 칭다오시는 해양강국 전략과 '해양+' 계획을 더 심화 실행할 것이며, 해양관리의 기반을 더 든든하게 구축함으로써 현대어업의 핵심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다.

해양관리 기반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 칭다오시는 국가급 해양생태문명 시범구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해양자원에 대한 과학적 배치와 관리를 심화시키며 해양환경에 대한 감시·관리와 오염방지를 강화할 것이다. 국가의 블루해만 복원 행동계획을 앞서서 실시하고 육·해 종합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해만(海湾)의 생태복원을 추진하며 자오저우만(胶州湾)을 전국 해양생태문명 건설의 시범 해만으로 만들 것이다. 또는 국가 '일대일로'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아시아 해양협력 플랫폼을 건설하는 데에 서둘러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어업 핵심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칭다오시는 수준 높은 콜드체인 물류기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는 원양어획의 생산량을 대폭 증가할 것이고 원양기업을 유입하고 원양선대의 규모를 확대할 것이다. 근해 어획을 과학적으로 통제하며 어업자원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해양목장과 인공어초의 건설도 서둘러 진행할 예정이다.

<자료: 中国海洋报, 2015.12.17.>